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태국정치에서 바라본
색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Col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ai Politics

황규희*

Kyu Hee HWANG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에너지는 색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대부분 자연경험에 근거하여 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테면, 빨간 색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며, 초록 색은 희망적인 색이며, 파란 색은 결속 및 신의와 보수적으로, 노란 색은 개혁의 이미지이다. 또한 다비트 보스하르트는 <소비의 미래>에서 현대인의 상품구매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색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정당과 정치인은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와 공식적인 의식에서 색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다.

태국은 현대정치에서 반 탁싌계, 왕실측 계파 또는 친 탁싌계, 민주주의 복귀 계파를 색의 상징성으로 시민세력 또는 정당의 상징성으로 표현한다. 탁싌 친나왓(Taksin Shinawatra) 총리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2006년 9월 군부쿠데타이후 태국정치에서 시민세력의 색깔 논쟁은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khee@pufs.ac.kr

정치를 이미지 시키기 시작하였다. 탁싰의 정치 복귀를 지지하는 집단은 붉은 셔츠를 입고 북부지역에서 수도 방콕까지 와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에 맞서 반 탁싰세력은 노란 셔츠를 입고 이들과 충돌하고 있다.

탁싰은 2001년 3월 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의 총재이다. 이 정당은 탁싰의 고향인 북부지역과 경제적 빈곤층이 다수인 북동부지역을 기반으로 농민 및 도시빈민층 우선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 지지로 집권당이 되었다. 탁싰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정치는 빈곤층과 농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탁싰은 2005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탁싰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엘리트와 군부집단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탁싰의 부정부패(친 코퍼레이션 주식매매시 세금 포탈, 아내 포짜만의 부정한 부동산 매입 등)가 도화선이 되어 반 탁싰세력이 규합하였다. 마침내 외유 중에 있던 탁싰은 2006년 9월 9일 쿠데타에 의해 물러나야만 했다.

이후 태국 정국은 빨간 셔츠를 입은 친 탁싰세력과 노란 셔츠의 반 탁싰세력과의 격렬한 시위로 일부 지역의 비상사태 선포, 던므양 공항과 수완나폼 국제공항의 점거,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시민세력간의 충돌로 인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방콕 및 팻타야 지역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태국의 정국은 안개정국에 빠지게 되었다.

정치적 변동과 혼란 가운데 2008년 12월에 탄생한 민주당(Democratic Party: 뿌라차티뻏당)의 아피쉴 켈차치와(Abhisit Vejjajiva)정권은 노란 셔츠의 수완나폼 공항점거 사태의 책임과 처벌, 빨간 셔츠의 팻타야 호텔 난입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쏘티 림텡꾼(Sondhi Limthongkul)의 암살사건 진상 규명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 선량한 태국시민들은 빨간 셔츠와 노란 셔츠의 지루하고 극렬한 세력 타툼에 염증으로 중도세력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를 입고 하루 빨리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며 경기회복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2006년 군부 쿠데타이후 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세력들의 색의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태국정치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노란색: 반 탁신편력(국왕과 입헌군주제 수호)

태국에서 반 탁신편력은 노란 셔츠를 입은 민주주의 국민연대(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집단으로 2005년 탁신편의 재집권 성공이후 탁신편총리의 절친한 동료였던 언론재벌 쏘티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현 푸미폰(Bhumibol Adulyadej) 국왕의 탄신일인 월요일의 노란 색의 셔츠로 국왕과 입헌군주제 수호를 상징하여 태국사회에서의 민주정치의 대변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PAD의 주도세력은 쏘티 이외의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쏘삭 꼬싸이쑈, 민주주의진흥위원회 위원장 피폼 통차이, 빈민회의 고문 쏘끼얏 풍파이분, 태국전력공사 노조위원장 씨리차이 마이응암, 태국철도공사 노조 임원인 씨윗 깨우완, 여성과 헌법 대표 말리랏 깨우까 등이다. 이들은 주로 군부, 관료,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및 왕정주의자와 친민주화 세력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

PAD 지지 세력들은 탁신편 정권을 농촌 유권자들의 무지를 악용한 부패한 포퓰리즘 정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탁신편의 부정부패와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발생된 인권유린 사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반면에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와 2007년 헌법 개정을 지지하였다.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은 임명상원제도의 일부 부활(상원의원의 70% 임명제 도입), 정당정치와 의회의 권한 약화, 그리고 관료체제와 사법부의 권한 강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들이다.

개약된 헌법으로 치러진 2007년 12월 선거에서 탁신편의 타이랏타이당의 후신이 팔랑쁘라차촌당(PPP, People's Power Party)이 압승하여 2008년 1월에 싸막 쏘터라 (Samak Sundaravej)이 총리에 임명되자, PAD는 '탁신편의 괴뢰정부' 축출과 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와 정부청사를 점거하였다. 9월초 PAD는 싸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총리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들은 쑤완 나폼 국제공항을 무력 점거하였다. 이후 탁신편의 매제 쏘차이 웡싸왓 (Somchai Wongsawat)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으나, 이들은 쏘차이 총리가 전 총리 싸막과 다르지 않는 탁신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2007년 12월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집권여당인 팔랑쁘라차촌당, 찻타이당(Thai Nation Party), 마치마 티파타야당(Neutral Democratic Party)에 대한 해산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당 집행위원회 간부들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쏘차이 총리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과도내각의 총리대행에 차와랏 찬위라꾼(Chavarat Charnveerakul)부총리가 임명되었다. 즉, 군부와 사법부의 지지를 받아 PAD의 요구대로 두 명의 총리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자, 노란 셔츠의 시위대들은 공항점거를 끝냈다. 이후 야당 지도자인 민주당의 총재 아피쉴이 총리가 되자, 약 200여명 탄권을 지지하는 빨간 셔츠 시위대가 국회를 봉쇄하여 태국 사회에서는 노란 셔츠와 빨간 셔츠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아피쉴 총리는 2009년 3월 빨간 셔츠의 시위대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던 정부공관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특별긴급회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정부는 이번 빨간 셔츠의 시위사태와 지난해 노란 셔츠의 시위사태에 대해 공정한 법적 집행을 할 것이다. 둘째, 시위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공공부문 손실인 공공채무와 정부수입 손해액 등의 정부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40억 바트의 정부공채를 발행할 것이다. 또한 경제대책 회의를 열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현재 방콕시와 일부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긴급조치 비상사태를 유지하며 정국의 안정을 꾀한다. 한편 오는 4월 19일로 기간이 끝나는 남부국경지역에 대한 긴급조치 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또다시 3개월을 연장한다.

그러나 빨간 셔츠 시위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정상회의가 팻타야에서 개최되는 장소에 난입하여 그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아피쉴 총리는 4월 12일 방콕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다음날 군의 강경진압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16일에는 이번 빨간 셔츠의 시위대를 주도한 극렬주동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팻타야에서의 아세안 +3개국 정상회의 무산시위 관련 14명, 아피쉴 수상 차량에 대한 폭행죄 12명, 내무부 청사 침입 관련



<그림 1> 노란색 셔츠를 입은 국왕의 지지세력, 매주 월요일은 국왕을 기념하는 날로 거리에는 노란색으로 가득 채워진다

10명 등이다).

이처럼 반 탁신편 세력들은 현 국왕의 탄신 색 노란 셔츠를 입고 국왕을 존경한다는 것을 상징화하여 태국민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태국민에게 국왕은 바로 태국민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지 노란 셔츠는 국왕을 존경하는 태국민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란 셔츠는 과거 부패한 탁신편정권과는 달리 개혁을 주도하는 진정한 민주세력으로 상징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개혁을 외치는 민주세력들은 태국의 구 엘리트들인 학자, 사업가, 퇴역 군인, 왕실 지지자들이다. 색채 연구가의 분석에 의하면 노란색은 깨어 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색이다. 이와 같이 태국에서 현 국왕의 탄신 색인 노란색을 민주세력 또는 구정치세력의 저항세력으로 이미지하고 있다.

빨간색: 친 탁신편세력(민주주의 수호)

2006년 9월 쿠데타 발생 후 이에 반대해서 생겨난 친 탁신편지지 세력은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이다. 친 탁신편세력은 지역적으로 북부 및 동북부

지역 주민이며 계층적으로는 농민과 도시빈민층이다. 이들은 빨간 셔츠를 입고 탁싨의 정치적 복귀를 희망하고 ‘노란 셔츠’ 부대 PAD와의 결사적 항쟁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탁싨 전 총리 타이락타이당은 집권 후 100만 바트 농촌 개발기금, 면 단위당 1개의 특산물 개발운동, 농민부채 유예, 30바트 기초의료복지 등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여 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UDD의 대표적인 인물은 1992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대표 짜뚜펀 프롬판, 1976년 쿠데타 후 ‘카오빠 (민주화운동 투쟁으로 정글로 쫓겨난 집단)’의 웅 또찌라칸, ‘끌름콘완싸오 마이아오파렛간(반독재 토요일의 사람들)’의 창설자이자 대변인 위푸탈랭 팻타나푸미타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부와 동북부의 농민단체, 방콕의 노동자택시기사단체 등도 주요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2007년 12월 23일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팔랑쁘라차촌당과 제1 야당 뿌라차티뻬당(민주당)과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팔랑쁘라차촌당과 뿌라차티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이념적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북부·동북부와 남부로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다. 탁싨 지지자들에 의하면, 현(現) 아피싯 총리는 군부의 계략에 의해서 당선된 수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피싯 총리의 사임과 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청사에 모인 이들은 아피싯 총리가 집무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3주일이나 방해하였다.



<그림 2> 빨간색 셔츠의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

빨간 셔츠 시위대가 2009년 4월 팻타야의 호텔을 점거하여 아세안 정상회담이 무산되었고,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4월 24일 긴급조치 비상사태가 해제되자마자, 빨간 셔츠의 UDD 주도자인 쏘뽏 프리싸까 쉑(Somyot Prasakkasamsuk)은 방콕 랏따나꼬썬 호텔에서 4월 25일 짜남루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쏘뽏은 이번 집회의 목적은 UDD 주도자들의 석방 및 이들에 대한 협박 중지, 지역라디오 방송에 대한 방송권 반환, 그리고 2540년(1997년)헌법으로의 복귀라고 밝혔다. 또한 쏘뽏은 UDD의 평화로운 시위집회 보장을 위해 경찰병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짜남루엥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는 전국 대도시들을 순회하며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 집회에서 위라 무씨까퐁 빨간 셔츠의 주도자는 탁싸 전 총리의 태국 귀환을 위해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왕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7월 31일까지 서명운동에 410만 명 참여).

6월 22일 저녁 7시 빨간 셔츠 시위대는 방콕의 짜남루엥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77주년 기념집회를 가졌다. 쉑차차이 단와타나누썬은 “민주국가를 찾기 위한 민주주의의 반환 요구”라는 주제로 전국의 빨간 셔츠의 시민들에게 6월 27일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新)자유경제주의 개혁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짜 빨간 셔츠의 주적은 군부도 아니고, PAD도 아니고 아피싯 수상도 아닌 구태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보호하려는 무리들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 27일 짜남루엥에서 빨간 셔츠의 대규모 집회는 폭우 속에서 강행되었으며, 그날 밤 탁싸 전 총리는 국제전화를 통해 ‘대곤 창환(de khon chang fan: 꿈 꾸는 자에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히며 끝까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또 아피싯 정부는 경제정책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들에게 8,000억 바트의 부채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이로 인해 태국경제는 침체를 맞게 될 것이며, 자신은 얼마든지 태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태국정치 현상에서의 빨간 셔츠는 탁싸의 고향인 북부와 빈곤계층의 북동부지역에서 지지세력의 상징이다. 또한 빨간 색이 힘과 열정, 사랑, 심장 등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색상이라는 색채연구

자들의 주장이외에도 중국계 태국인 탁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빨간 색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상징화 시켰다.

파란색: 중도 세력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파란 셔츠 세력의 출현은 2009년 4월 팻타야에서 빨간 셔츠 시위대들에 의해 아세안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아피싯 수상의 비상사태 선포직후이다. 4월 12일 이들은 ‘군주제 수호’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파란 셔츠를 입고 빨간 셔츠와 충돌하였다. 빨간 셔츠 시위대들은 이들을 친정부 민병대라고 고소했으나 정부를 이를 부정하였다.

파란 셔츠 세력의 대표자는 탁싰계열에서 민주당에 협력했던 부리람지역의 네윈 칫첩(Newin Chitchop)이다. 민주당 촌부리도의 뿌라무언 의원은 국가와 촌부리도민을 위해서 모인 집단으로 자신의 소속당 민주당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촌부리 팻타야에서 열리는 아세안정상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빨간 셔츠의 시위대에 반대하여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위를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폭력충돌까지 확산되었다.

6월 21일 동북부지역의 싸껀나컨 3구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태국을위한당(빨간색: 친 탁싰계)의 아누락 분송후보가 태국자공심당(파란색: 반 탁싰계)의 피탁 쩌타씨리 후보를 제치고 싸껀나컨 3구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태국자공심당의 파란색은 국기에서 국왕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알리고, 개인과 단체들이 침범하고 있는 왕실기관을 수호하는 정당으로 이미지 시켰다. 또한 이 당은 태국민의 화합과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국가의 문제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폭력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색과 초록색: 새정치당(New Politics Party)

반 탁실패력으로 노란 셔츠의 시위대는 지난 해 두 차례 공항을 점거하여 국제적으로 악명 높았다. 2006년 쿠데타이후 3 명의 수상(짜막, 쏘차이 및 아피싯)을 탄생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노란 셔츠의 PAD의 주모자 쏘티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태국의 영자지 'The Nation'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내가 정치에 나가면 내 얼굴에 당신의 신발을 벗어 던져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전 방콕시장이며 PAD 공동 발기인 째렁(Chamlong Sri-Muang)은 이 시위대들이 정당이 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째렁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이 군부에 의해 초안된 2007년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구 정치제도를 관용할 수 없다고 부연하였다. 이는 PAD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정치적 입장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색을 바꾸는 것이다.

2009년 5월 25일에 수천 명의 PAD 지지자들이 만장일치로 창당에 찬성하였다. 창당 하루 전날 5월 24일 총회에서 PAD는 노란 색(국왕 지지 상징)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바꾼다고 선포하였다. 쏘티는 4월 17일 암살위기에서 모면한 이후 "초록색은 친 환경과 깨끗한 정치를 나타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태국정국의 사태를 초래한 시위대들이 순수한 시민저항세력이 아니라 정치집단인 것을 시사한 것이다.

6월 2일 21명의 창당 발기인은 노란 셔츠의 PAD측이 '새정치당'(New Politics Party, 칸뜨영마이)을 PAD의 정당이름으로 정했다고 발표하였다. PAD 1기 주도자 쏘짜 꼬싸이쑈가 정당대표, 사무관 쑤리야싸이 까따썰라가 사무총장으로 6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 9월 군부쿠데타이후 태국정치의 현상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초록색의 색 이미지로 자신들의 정체성 및 지지를 세력화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정치 이미지를 상징화시키고 있다. 약속과 달리 새로이 창당된 '새정치당'은 현 아피싯 총리의

기반인 민주당의 세력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 총선에서 과거 정치적으로 극우성향과 경제적 좌파성향의 PAD의 전략으로는 정권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이미지의 변신으로 노란색(군주)-초록색(깨끗한 정치)을 상징화시키고 있다.